

2007 증시전망

새해 첫 거래일에 국내 증시가 강 보합으로 마감해 올 한해 증시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각 증권사들은 지난해 세계 증시에서 유독 소외됐던 국내 증시가 올해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들인 기업의 펀더멘털(내재가치)이나 수급, 대외여건 등을 하나하나 따져 봐도 올 주식시장은 언뜻봐도 갈수록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이다.

하반기 강세장... 1700선 넘본다

2분기 저점, 3분기 경기회복타고 급속 개선
외국인 적극 매수... IT·금융주 반등 가능성

◇전망극장 장세 예상=국내 주요 증권사 12곳의 주식시장 전망을 종합해 보면 올해 증시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으로 보면 코스피지수의 경우 최고치는 대략 1650~1720선으로 추정됐다. 12개 증권사 중 8곳이 코스피지수가 1700선 안팎까지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조정이 나타날 경우 연중 최저점으로는 대략 1300선을 제시했다.

분기별로는 2분기가 가장 저조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데 대부분 증권사들의 전망이 일치했다. 연중 저점도 2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3분기 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이익도 급속히 개선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어 4분기로 접어들수록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급도 긍정적이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단행되면 2005년처럼 비달러자산 선호현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한국 기업들의 실적회복에 비해 주식의 가격매력이 높아져 외국인도 하반기부터는 적극 매수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유망업종 및 종목=올해 코스피지

수 예상 최고치인 1650~1700은 작년 말 대비 15~18.5% 높은 것이다. 다시 말해 올 연간 주식 투자 기대수익률이 15~18.5%라는 얘기다.

증권사들은 올해 최고 유망업종으로 IT(정보기술)주를 꼽았다. D램 등 반도체 경기가 올해도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난해 저조했던 디스플레이와 휴대폰 부문도 회복 전망이 밝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올해 첫 거래일인 2일 코스피지수는 0.80포인트 소폭 상승한 반면 디스플레이주(8%)와 반도체주(2%) 등 IT주는 큰 폭으로 올라 기대감을 반영했다.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조세주와 자본시장통합법을 앞두고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 증권주도 올 주목해볼 만한 업종으로 꼽혔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던 통신주와 인터넷 등 신산업 관련주도 올해 유망한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사들은 최고 유망종목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SK, NHN 등을 꼽았다. 삼성전자와 SK는 조사대상 12개 증권사 중 9곳에서, 포스코와 NHN은 7곳에서 각각 유망주로 선정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2일 오전 서울 증권선물거래소서 열린 2007증시대동제에서 증권시장 관계자들이 '증시활황' 문구를 쓴 금돼지 형상을 선보이며, 2007 증시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폭죽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2007 재계 경영 키워드?

“새 성장엔진 찾아 글로벌시장 뚫어라”

새해 재계를 이끌 핵심 경영 키워드는 '창조적 발상' '혁신' '고객 우선' '일등 경영' 등으로 요약됐다.

삼성, 현대·기아차, LG, 포스코, 금호 등 주요 그룹들은 2일 일제히 사무식 및 신년하례식을 갖고 새해 경영목표와 사업 및 투자 계획을 밝혔다.

재계는 저환율, 고유가, 치열한 국제경쟁 등 대내외의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고객을 중심가치로 삼아 혁신으로 미래도전을 극복한다면 글로벌 리더 그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신년사에서 창조적 발상과 혁신을 주문하면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경영시스템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물론 기업문화까지도 과감하게 바꿀 것을 촉구했다. 이 회장은 반도체와 무선통신의 뒤를 이을 새로운 전략사업의 발굴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창조적 발상과 혁신으로 미래의 도전에 성공한다면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회장은 “새해는 '고객 우선경영'과 '글로벌 경영 안정화'를 경영목표로 해서 적극 투자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리더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새해 427만5천대의 완성차를 판매, 총매출 106조원을 달성키로 목표를 정했다. 이는 지난해 추정

실적인 완성차 판매 376만2천대(전년 대비 5.9%), 매출 93조원(9.4%)에 비해 각각 13.6%, 14% 증가한 것이다.

구분부 LG그룹 회장은 “올해는 지난 60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100년을 넘어서는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고객 가치를 선도하는 '일등 경영'을 통해 미래 변화를 주도해 나가자”고 독려했다.

재계는 새해에도 경제전망, 환율, 원자재값 등 국내외 경영환경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역량 집중을 주문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새해 경영 화두를 '아름다운 비상(飛上)'으로 정하고 매출 21조원, 영업이익 1조8천억원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박 회장은 “이윤을 극대화해 법인세도 많이 내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많이 해 국가와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올해 경영 키워드로 '세계 초일류 글로벌 그룹'을 목표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 확보, 글로벌 철강투자 확대, 그룹 전체 가치 극대화를 제시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기존 사업들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과나가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가 새로 도전하려는 분야에선 먼저 진입한 기업들이 장벽을 굳건히 하고 있어 미지의 분야를 개척하는 일에는 큰 위험도 따른다”고 ‘달려 마’ 상황을 임직원들에게 상기시켰다.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박삼구 금호 회장, 허창수 GS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증권사별 올해 증시전망

증권사	지수전망치	유망업종 및 테마주	유망종목
국민연금	1320~1720	대형성장주, M&A관련주, 내수관련업종 대표주	KT&G 대우증권 FNC코오롱 삼성전자 대한항공
대신증권	1250~1650	조선 장우 반도체 인터넷 금융 통신	KT&G 삼성전자 KT 대우증권 한화제철 현대건설 대한항공 포스코 신세계 대우인더네셔널 온디아이 SBS SK(주) 다음 한국가스공사 휴비스
대우증권	1380~1700	〈상반기〉반도체 헬스케어 조세 개혁 물산주 〈하반기〉 디스플레이 자동차 통신 운영 유망	KT&G 광주신세계 종이재킷 NHN 제일기획 포스코 SK(주) 에이아이제이 두산중공업 한국타이어 한미모토조선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가스공사 메가스터디 해피뉴스 LG텔레콤
미래에셋증권	1450~1690	유통, 증권, 인터넷 등 내수성 장주와 통신서비스, 자산주	SK(주) LG화학 포스코 한진해운 두산산업개발 삼성물산 신세계 S&T대우 이오에피서비 총공정 국민은행 우리투자증권 NHN 삼성전자 LG 필립스CD 셀란 한국전력
삼성증권	1350~1700	IT 조선 기계 은행 건설	삼성전자 LG전자 신한지주 삼성해피 신세계 KT&G 한미약품 한국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중공업 대한항공 포스코 SK(주) 한솔제지 현대산업개발 한화 NHN
우리투자증권	1710	백화점 유통 등 유행주와 미디어주, IT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이모직 다음 엔씨소프트 GS홀딩스 제일모직 제일기획 한미약품 동부하이텍 KT 한국전력 SK(주) 현대건설 대한항공 (주)G

노인·저소득층 건보료 인하

건강보험료 등급이 폐지되면서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가 월 44만원 가량 인상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최저 1800원이 내려간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을 각각 개정, 지난 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활수준과 경제활동 참가율 1등급(20점, 2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에 해당하는 8만223세대는 월 보험료가 4590원에서 2790원으로 1800원, 2등급(32점, 20세

는 한해 총 109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족,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 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000세대에 대해 건보료를 10~30% 경감했으나 새해부터는 연소득이 360만원 이하, 과표 재산 1억3000만원 이하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또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000세대의 경우 현재 10~30%에서 30%로 경감 폭을 확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연예인 내세운 건강 보조식품 “사·기·조·심”

특정 질병에 특효라며 연예인을 내세워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을 듯하다. 무턱대고 샀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진산고’라는 기타인삼식품을 원자력의확원에서 특허받은 ‘암세포살해 및 면역세포생성작용,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작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알간지나 잡지 등에 허위, 과대 광고하다 적발된 대전시 서구 소재 K산업주식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이 식품판매업자는 특히 광고지에 진산고를 들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과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암환자 체험사례를 게재하는 수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 식품판매업자는 1박스당 330만원씩, 3천736박스를 팔아 무려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인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제품은 사지 말고 꼭 당부하면서 특히 암환자가 허위 광고만을 믿고 다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건강상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펀드 해외투자 걸림돌 제거”

권오규 부총리 조세체계 개편... 하반기에 집값 안정세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과 관련 “우리나라 펀드의 해외투자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불합리한 정부 규제, 수익률 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세체계 개편도 적극적으로 다뤄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오전 재정경제부 기자회견을 방한, 해외투자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내 투자자와 비교해 차별 대우받던 부분을 다 끌어내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기본 스탠스 하에 포트폴리오 투자를 활성화 하려고 해 해외투자(FDI)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고 전략적 진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업종들을 살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근원적으로 해외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우리 펀드들의 투자능력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공급이 가시화하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당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올해 하반기 30만호를 기점으로 후분양제 연기,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감안한다면 내년부터는 공급물량이 32만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서 “안정 여건은 하반기부터 마련될 것이다”고 예상했다.

그는 “다만 주택담보대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가격 폭락의 상당한 리스크를 발생시키므로 폭락보다는 하향 안정세가 옳다고 본다”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수급프로젝 가격 하락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입냉동 홍어값 싸진다

활동 등 수산물 조정관세 조정

수입냉동홍어가 조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소비자가격이 싸질 것으로 보인다. 2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관계심의위원회는 지난날 26일 수입냉동홍어가 국내 수산물로 공급되지 않는데다 국내산 홍어와 차별화돼 경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올해부터 조정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조정관세란 경쟁력이 약한 국내산장이 외국산 수산물의 수입 증가로 교란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특정품목의 수입수산물에 대해 관세율을 최고 100%까지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회는 또 냉동민어에 대한 조정관세를 6% 포인트, 활돔에 대한 조정관세를 5%포인트, 활농어와 냉동농어에 대한 조정관세를 각각 2%포인트씩 인하하는 한편 활뱀장어, 활민어, 새우젓에 대한 조정관세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연합뉴스

■수산물 관련 조정관세율

품목	기본(%)	2006년 조정관세	2007년 조정관세	증감내역
뱀장어(활어)	10	30%	30%	현행유지
뱀장어(냉어)	10	1,908원/kg	1,908원/kg	현행유지
돔(활어)	10	45%	40%	5%p인하
돔(냉어)	10	3,292원/kg	2,781원/kg	5%p인하
농어(활어)	10	40%	38%	2%p인하
민어(활어)	10	36%	36%	현행유지
명태(냉동)	10	30%	30%	현행유지
곰치(냉동)	10	36%	34%	2%p인하
홍어(냉동)	10	27%	폐지	-
민어(냉동)	10	63%	57%	6%p인하
새우젓	20	50%	50%	현행유지
오징어(냉동)	10	330원/kg	330원/kg	현행유지
		24%	22%	2%p인하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및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홍남기계 광주영업소	전기/전자 전공자 채용	초대졸/경력1년	2000~2200	01/05	062-382-6822
현대모비스	광주공대/구내부 사무보조 지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05	041-620-5567
INBET(인베트)	웹프로그래밍 실무 경력자 모집	고졸/경력자 모집	1800~2000	01/05	062-367-9063
서일기계공업(주)	정규직 사무관리 지원 모집	대졸/경력무관	2600~2800	01/06	062-951-0081
포토양주	[포토샵]정규직 여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6	062-222-0948
신신도LND	용모 단정하고 성실한 사무 여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1/06	062-380-0800
아이화인디스	품질관리 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01/06	062-951-9341
㈜금강기건	비서직 지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07	010-2477-0815
아이인텔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1/09	062-601-7203
GM(대우)자동차판매	2006 정규직 신입 및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3000~3200	01/10	062-942-9239
윤선영영고실	[영어교육영문학교] 상담/관리 선생님 채용공고	초대졸/경력무관	2000~2200	01/11	062-526-0565
호텔 프라도	(주)프라도 관령호텔 - 경영 및 사무 관리직 모집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3	062-654-2255
글로벌평통신(주)	평가기능연구사 연구원 모집	대학원/경력무관	회사내규	01/15	062-605-9744
베이저리우스상설인원단정	청고 물류 및 입고출 관리 담당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15	017-604-7733

(www.recruitingkwangju.com) 062.JOBKOREA.CO.KR